

입시이슈 포진 '5월', 학생부 보완·학습습관 짜기 좋은 시기

수능 D-200일

진로 연관 대회, 전략적 준비 필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 계획 짜야
자신의 학습 완성도 점검·보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5월은 수능 D-200일을 시작으로 3학년 1학기의 핵심이라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입시·학습 이슈가 포진한 달이다.

고3수험생들은 1학기까지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므로 내신부터 수시 준비, 수능 학습 등 대입과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 학교생활 연장선상에서 교과·비교과 모두에 유의미한 전공 관련 활동을 전개해 학생부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5월 각종 교내 대회·행사 참여해 학생부 보완…‘수시 모집요강’ 발표 확인

다양한 교내 대회 및 행사가 이어지는 5월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대회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5월은 3학년 1학기의 핵심이라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입시·학습 이슈가 포진한 달이다. 5월 각종 교내 대회·행사에 참여해 학생부를 보완하고 이달 발표될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부를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수상의 경우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기당 1건만 대입에 반영되므로, 자신의 희망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회를 하나 골라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5~6월까지는 대회 외에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및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풍부히 채우는

게 좋다. 특히 5월 초에는 모든 대학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요강이 나오면 관심 대학뿐 아니라 그 대학과 경쟁률이 겹치는 대학의 자료 역시 꼼꼼히 살펴 전년도 대비 올해 변화사항, 지원 참고사항 등을 정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 제출 서류 등을 완

화할 예정이므로, 수시 모집요강 발표 이후에도 틈틈이 추가변동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단순히 전형방법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전공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대학별 고사 일정,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 수시 지원을 위한 핵심 항목들은 모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때 입학처 사이트 또는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확인, 과거 합격자의 전형별 평균 내신 성적대를 함께 참고한다면 보다 선명한 수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상반기 학습 성취 시간 활용 전략…6월 모평 목표로 수능 대비

5월은 지금까지 학습 성취와 생활패턴을 점검해 여름방학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나만의’ 학습 습관을 새로 짜기에 좋은 시기이다. 특히 수시와 정시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기말고사 대비 및 수능 학습 간의 균형을 따져 학습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도 이 때가

적합하다. 이 때 목표는 ‘기말고사에서 국·영·수 주요 과목 10점 이상 점수 향상’, ‘6월 모의평가 전 영역에서 2~3점 짜리 문항 틀리지 않기’처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6월 수능 모의평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할 뿐 아니라 졸업생 역시 응시 가능하므로 내 전국 위치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학생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과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검토하게 되므로, 실전 수능만큼 진지하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김병진 소장은 “‘공통+선택’ 체제의 수능에서 ‘선택 과목’은 6월 모의평가에서도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 완성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앞서 봤던 3월·4월 학력평가 및 예시 문항을 통해 문제 풀이의 순서를 구상하고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소외계층에 ‘나눔상자’ 전달

서울시교육청 쌀밥 등 식료품 후원 4개 단체서 350개 기부 받아 전달

서울시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취약계층 아동에게 소정의 식료품을 기부한다.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사단법인 등 4개 단체로부터 쌀밥, 잡곡, 햄, 김, 소시지 등 약 7만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나눔상자’ 350개를 기부받아 3일 서울 소재 지역복지센터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가정에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기부단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

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등 4곳이다.

이번 기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노동조합과 사단법인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오후 2시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나눔상자를 기부한 단체장들과 기부식을 개최한다. 조 교육감은 구호품을 기부한 이들 단체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외 가정에게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주가 상승, 환율·경상이익에 큰 영향”

김대종·윤진희 세종대 교수 분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윤진희 수학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주가는 경상이익과 외국인투자, 환율, 채권이자에 가장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세종대학교는 김대종·윤진희 교수와 구유영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세종대 인공지능(AI) 센터에서 개최된 국지능시스템학회에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퍼지이론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대에 따르면 주가에는 외환보유고, 외국인투자액, 경상이익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반면, 환율과 채권이자율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종합주가지수는 외환보유고와 0.95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는 게 김대종 교수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도 0.5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코스피와 환



김대종(오른쪽), 윤진희 세종대 교수, 구유영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세종대 대양 AI센터에서 개최된 국지능시스템학회에서 주제 논문을 발표했다.

/세종대

율은 -0.30으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D금리와 국채금리는 -0.74와 -0.77로 채권금리 상승은 주가를 하락시킨다. 채권금리는 최근 18% 정도 이후 40년간 계속 하락했다.

김대종 교수는 “주가상승을 위해서 정부는 2021년 9월 한미통화스와프를 만기를 연장하고,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며 “미국의 테이퍼링(달러환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문화예술 발전 위한 업무협약

이석영뉴미디어서관과 MOU

삼육대학교 음악학과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과 지난달 30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음악·뉴미디어 특화 도서관으로,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개관했다. 남양주 일대에 보유했던 토지를 모두 팔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이어받아, 뉴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신흥무관학교’를 지향한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기존 도서관의 열람 기능은 물론, 뉴미디어 정보와 기술, 공간, 장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삼육대 음악학과와 이석영뉴미디어



임봉순 삼육대 음악학과 학과장(왼쪽)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이경구관장이 지난달 30일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

도서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L.SY 프리아트스쿨(pre-Art School)’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영(LSY) 선생’과 ‘삼육(SY)대’의 영문 아너셜을 따온 것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삼육대 음악학과 전공생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학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지난달 28일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공동 연구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연구 및 이용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생물자원 조사·활용 및 공동연구 ▲생물 표본 기증·교환 및 연구시설 상호 이용 ▲우리나

라 고유 생물자원 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및 보전 노력 ▲물자원 특성화 교육 과정 신설·강화 등 교육과정에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외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확보, 보존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에 대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라 고유 생물자원 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및 보전 노력 ▲물자원 특성화 교육 과정 신설·강화 등 교육과정에서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외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확보, 보존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에 대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울러 인천시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올바른 언어문화를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이현진 기자

자이언트스텝

중앙대에 6000만원 기부

(주)자이언트스텝이 중앙대학교에 발전기금 6000만원을 기부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캠퍼스 본관 종강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주)자이언트스텝이 6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주)자이언트스텝은 광고·영상 등에 관한 크리에이티브 제작물을 만드는 VFX·메타버스 전문 기업이다. 매년 500여 편의 국내외 광고와 뉴미디어, 영화 분야 특수효과를 제작하며, 지금까지 총 5700여 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국어문화원

문체부 ‘최우수 기관’ 선정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20년 전국 국어문화원 사업 평가에서 20개 국어문화원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2011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인천 지역 내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세종 나신 날 기념 행사와 한글날 문화행사로 다양한 공모 전시 및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와 대학생 우리말 지킴이를 통해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울러 인천시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올바른 언어문화를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이현진 기자